

직장·직능단체 지역연합

대구신행단체협 내달초 창립 부산불교신도회 사단법인 추진 재불련 범종단 신도조직 재건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송재건)가 지난달 15일 출범한 가운데 직장·직능 단체들이 중앙신도회와는 별도로 지역별로 연대하는 등 재가조직이 결집되고 있다. <관객기자 3면>

한국재가불자연합 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 대구신행단체연합회(가칭) 등이 독자적인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조계종 개역과 중앙신도회 창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한국

재가불자연합은 조직을 재정비하고 직능·개별 신도단체의 가입을 확대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한다. 60여개의 범종과 신행단체와 신도회로 구성된 부산불교신도회는 올 상반기중 독자적인 사단법인화를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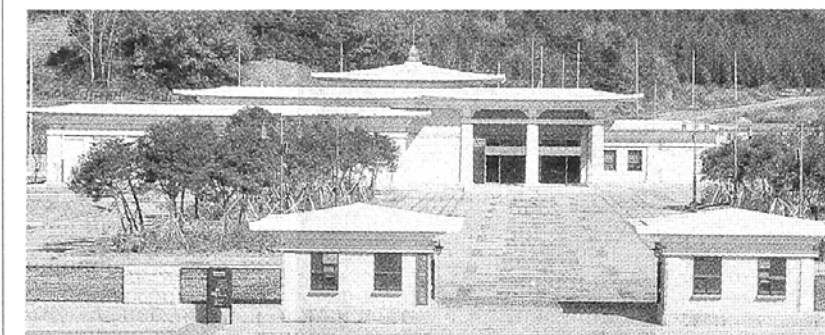
또 대한불교대불회 개인택시정법회 정법회거사합회 등 20여개 연합회(가칭)가 모인 대구신행단체연합회는 내달초 창립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재불련은 23일 서울 송현클럽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이종구 前구방장장을 공동회장으로 구분청, 정인익씨 등 부회장 4명을 새로 선임하여 공동회장 4명, 부회장 10명으로 강화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도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불련은 중앙신도회가 흡수할 수 없는 직능 및 개별 신도단체를 대부분 참여시키는 자율적인 범종단 신도조직을 재건한다는 방침이다.

재불련 등 3개 연합단체 활동

강화 방침은 신도단체의 조계종 사찰 등록이 독자성 상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지적된다. 이들 단체들은 중앙신도회와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총무원을 견제하는 자율적인 신도단체를 지향하고 있다.

이와관련 중앙신도회측은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점차적으로 직능단체를 포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미륵사지 유물전시관 개관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은 지상1층 지하1층으로 총면적 594평 규모에 4개의 전시실을 갖추고 있다. 전시될 유물은 지난 80년부터 96년까지 17년간에 걸쳐 발굴조사된 미륵사지 유물 1만8천7백여점 중 3백40점이다.

청주 BBS 개국... "충청불심 모은다"

불교청주방송(FM 96.7MHz)이 25일 오후 2시 10분 문화센터에서 개국기념법회를 개최하고 첫전파를 발송했다.

이날 개국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두스님, 불교청주방송 운영위원장 해광스님(법주사 주지), 불교방송 이사장 영담스님, 불교방송 서문각사장, 불교청주방송 박재선 사장과 공보처 및 3당 관계자 주병덕 충북도지사 김영태 도교육감 김현수 청주시장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해 개국을 축하했다.

해광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청주방송은 앞으로 충청지역의 불자와 불교를 하나로 모으고 부처님의 법을 호종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중일 우호 경도대회 대표단 60명 파견 합의

종단협의회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경도대회 집행위원회(위원장 홍파·관음종 총무원장)는 22일 3차 회의를 갖고 대표단 인원구성 및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표단 60명, 개회식 인사말, 기조연설, 공동선언문 낭독 등에 대한 소임자 선정 등을 비롯해 경도대회 제반 준비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노인위안 성지순례 수원 개인택시 불자회

수원개인택시불자회(회장 조안희)는 17일 소속회원택시 23대를 동원하여 연꽃마을 용인양로원 노인및 인근지역노인 66명을 초청, 속리산 법주사 성지순례 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날행사는 법주사에서 특별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참가자들은 팔상전 미륵대불 대웅전등 경내 모든전각을 돌며 참배했으며 속리산 법주사주변에서 상가를 운영하여 연꽃마을회원들과 수원개인택시불자회가 제공한 점심공양 떡음료등을 나누며 여흥도 곁들여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용인양로원 임춘성원장은 "오늘날이 좋은날 노인들을 위해 마음을 내준 수원개인택시불자회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기뻐했다.

현불뉴스

도원스님 사리 22과 수습

13일 열반한 진제당 도원대중사의 법구에서 오색영통한 정골 사리 22과와 연골사리 8과가 나왔다. 현재 대구 삼보사에 보존되고 있는 종살크기의 금은홍후회색사리는 49개가 끝난후 조성될 사리탑에 봉안된다.

일본출 신라금동불 '한국'

지난 91년 경희대 박물관에서 도난된 문화재를 시중에 팔려간 혐의(장물취득)로 김영철(32·노동·제주시내도동)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김씨는 2월25일 공동공상 강도씨에게 금동여래입상, 가야시대 금동팔찌 1개 등 문화재 7점(시가 7천만원 상당)을 팔려간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성군 백양사현수막 파기

백양사(주지 지선) 남골당건립과 관련 군(郡)비 지원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장성군(군수 김홍식)이 24일 직원들 시켜 사찰경내 현수막과 대자보를 파기하려다 스님들에 의해 발각돼 충격을 주고 있다.

백양사에 따르면 장성군은 지난 20일과 22일에도 파손행위를 했다.

포교국장단 해외연수 접수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은 6월 7일부터 13일까지 6박7일간 일정으로 '전국 포교국장단 해외 포교현황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일본 오사카 및 교토, 나라지방의 불교 사회복지시설 및 포교현황을 살펴보고 임제종 흥분산과 교육시설, 천리교 본부 방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행자교육 1년으로 확대해야"

조계종교육원 공칭회

조계종 행자교육과정을 연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2회 실시하던 행자교육원의 1회 개설과 4년간의 기본교육 이수후 사미계를 수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한국 검토되고 있다.

교육원(교육원장 원산)이 22일 '기초(행자)교육' 제도개선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 전국 교구본사 교무스님 등 참석자들은 중단 기본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대책 마련과 기초교육 제도개선, 상실기초(행자)교육원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불방 공금형량 수사추구 컴퓨터조작 밝혀

18개 단체가 참가한 '불교방송 정상화를 위한 불교대개혁위원회'(이하 법대위)는 24일 서울지검에 9개 조항에 걸친 불교방송 공금형량 사건의 진실규명과 수

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범대위 자료집을 각국 구본사 총회의원 신행단체 언론사 등에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법대위는 29일까지 지난번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한 종하스님 영담스님의 이사진 사퇴 등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사퇴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불교방송 공금형량사건에 대한 재단수습대책위 실무위원 박원익씨는 종화사회법과위가 밝혀낸 8억3천6백만원 횡령에 대한 조사결과 변호된 대구와 청주의 컴퓨터 회계관련자료는 지난 3월19일~21일 사이에 서울 본사에서 누군가에 의해 날뜯은 시간에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이같은 조작사실은 김선도 김현안 등 경리부 직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또다른 공범이 존재한다는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인도파견 유학생 선발 조계종, 송광사승가대 인가

조계종교육원(원장 원산)은 23일 교육원 회의를 열고 송광사승가대학을 정식 인가하는 한편 인도 뿌나대학에 파견할 유학생으로 현행스님(승가사)을 선발했다.

교육원은 또 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법산스님(종교대 불교대학장), 역경위원회 위원장에 종림스님(대장경연구소장), 교재관련위원회 위원장에 무관스님(계단위원회 위원)을 각각 선임했다.

대장경에 새생명을 후원자 1만명 돌파

해외동포도 관심

3월24일 시작된 '팔만대장경에 새 생명을' 8만 후원인모집 캠페인이 지난 22일 현재 1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범국민적 운동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캠페인은 국내는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등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동포들도 다수 참가하는 등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천주교의 김영식 신부가 제1호 후원자가 돼 출발부터 화제를 뿌리고 있는 캠페인에 동참하는 후원자들의 사연도 가지가지.

월남전 상이용사가 매일 나오는 연금의 일부를 후원하겠다고 하는 사연이 있는가 하면, 살인죄로

유죄에 있는 한 수감자는 뒤늦게 불교에 귀의, 영치금 중 일부를 계속 내놓으며 참회의 삶을 살겠다는 뜻을 전해오기도 했다. 말 못하는 아들의 말문이 트이게 해달라는 어머니의 애절한 바람과 모든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는 어느 시각장애인 의 원(願)도 담겨져 있다.

이처럼 재연된 전통등이 갖는 의미는 크다. 첫째 등문화의 맥을 잇는다는 것이다. 둘째 연등축제를 국민들의 축제로 승화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점이다. 셋째 사

교계 '가정의달' 잔치 풍성

경도관광·가족마라톤·백일장등 줄이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가족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각종 행사들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자비집회(회장 동광스님)는 3일 오전 11시 우이동 출발공원에서 '어버이날 노인잔치'를 벌인다. 또 로문사는 가족들간의 사랑을 글로 전하는 주제로 4일 오전 11시 경내에서 초등학생~성인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한다. 속초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홍스님)은 5일 오전 9시 속초시 영당동 범바위에서 소년소녀가장과 주역주민이 함께하는 미니올림픽을 마련하고, 7일 오전 9시 지역내 6백여 무의탁노인을 초청, 백일장 오색온천으로 경로효도관광을 떠난다. 강릉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복현)도 6일부터 10일까지 경로주간으로 정하고 8일

경로잔치, 9일 효도관광, 24일 청소년어머머담을 펼친다.

또 덕유사회복지관(관장 영담스님)은 7일 독거노인을 초청,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및 어린이 재품잔치를 연다. 개금사회복지관(관장 법산스님)과 명륜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현각스님)도 8일 장수현마당을 각각 마련한다. 목동정소년회관(관장 명우스님)은 11일 가족마라톤대회를 개최, 가족간의 사랑과 소중함을 일깨운다.

불자들과의 행사가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

97연등축제를 주최하는 불족위원회가 내세우는 행사방향을 요약한 말이다. 불족위원회는 이번 연등축제의 가장 큰 특징으로 전통등 재현을 꼽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등축제는 장엄불, 가장행 등 행사를 위한 행사위주로 치러져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로서는 초점이 흐트러지는 지적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금년에는 수백년간 문헌속에 묻혀있던 전통등이 재현돼 연등축제의 새 비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불족위원회의 전통등 연구모임은 22일 조계종 불교회관에서 문헌상으로 전해내오는 전통등 18종류를 재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전통등은 불교의 전통기법으로 옛모습 그대로 재현

을 형상화한 코끼리등, 불교의 4를 형상화한 복등 등등 목어등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처럼 재연된 전통등이 갖는 의미는 크다. 첫째 등문화의 맥을 잇는다는 것이다. 둘째 연등축제를 국민들의 축제로 승화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점이다. 셋째 사

목탁 소외

김중근 <취재1부 기자>

패 눈길을 끌었다. 특히 왕실의 내물전에 서 국운의 번창을 위해 불을 밝혔던 불왕등은 그 의미 뿐만 아니라 화려한 채색과 세밀한 터치로 일반인들까지 큰 관심을 갖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불교의 상징적 동물

부처님 오신날 봉축기념 특가 보금

◆ 금강경 10폭병풍
(고급공단 금사)

- 후면: 석가세존일대기(관상도)
- 재질: 스키목/양면비단/목후지
- 봉축특가: ₩460,000원

◆ 부모은중경 10폭병풍
(고급공단 금사·화)

- 후면: 반야심경(주사 영인본)
- 재질: 스키목/양면비단/목후지
- 봉축특가: ₩480,000원

◆ 석가 세존 일대기(팔상성도)

- 후면: 금강경(고급공단 금사·화)
- 재질: 스키목/양면비단/목후지
- 봉축특가: ₩380,000원

◆ 천불 금강경

- 경판규격: 505×255×8(%)
- 재질: 주석(99.9%)24K순금 표면처리
- ※경판배우리에 천불을 모셨습니다.
- 봉축특가: ₩480,000원

◆ 국제유네스코 세계유물지정 팔만대장경 국보 金銅般若心經 제32호

- 규격: 268×209(%)
- 재질: 순산주/순금세금
- 봉축특가: ₩60,000원

◆ 금강호신불시계

- 1PG순금도금
- 고급금강병드
- 3기압 방수
- 문자판 양자작
- 봉축특가(남·여): ₩50,000원

기획제작전문봉사의 집
三田佛事
서울 (02)732-6095~6